

# “놀이로 배우는 오월, 청년의 목소리로 잇다”



친란한 나의 저항전.

청년잇소 오월광장 황혜연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월광장’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황혜연입니다. 2024년부터 ‘오월잇다’를 부흥시켜 보고자 ‘청년오월해설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월잇다’ 단장님과 함께 5·18민중항쟁 해설과 놀이를 결합한 ‘계엄집기 : 경찰과 도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월광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오월광장’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대에 맞는 오월 정신 계승 활동을 개척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월광장’에 속한 청년과 청소년들을 ‘오월잇다’라고 따로 부르는데, ‘오월광장’ 소속 청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오월잇다’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월잇다’ 주력 사업인 ‘청년오월해설사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정기, 노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고요. 국립 5·18민중묘지 해설을 준비해 조별로 해설 시연을 준비하는 것까지 기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민주의 밤’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오월잇다’에서 청년오월해설사와 함께 ‘계엄집기 : 경찰과 도둑’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5·18민주광장, 전남대와 같은 사적지에서 해당 사적지에 얽힌 5·18민중항쟁의 역사를 듣고, 당시 시민에 이입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높이 체감으로 승화하는 행사입니다.

‘시대 맞는 오월정신 계승’ 비영리단체 운영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월광장’에서 저를 비롯한 자원봉사



오월광장활동 모습.

## “저항과 연대, 즐거운 공동체 문화로 계승할 것”

자들을 눈여겨보고 단체 설립 계획을 소개 하였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 참여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이후로 끊긴 멤버십을 다시 복원하고자 2024년부터 청년해설사 양성에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대학생기후행동’에서의 활동 경험 덕에 사회 문제와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과 사회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실천은 사람들 간의 탄탄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 지기에 점차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다가야 더 많은 청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오월광장’에서 제안이 들어왔

고, 저항과 연대, 공동체 정신을 통해 청년들을 만나보는 시도도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년 12·3 내란 시도 이후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던 광주의 청년분들과 인연을 맺고자 ‘친란한 나의 저항전’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나누었던 스티커 등 굿즈부터 직접 들고 다녔던 깃발이나 응원봉 등 투쟁의 기록을 모아보는 전시였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네트워크 킷 파티를 진행했는데요. 크지 않은 기획이었음에도 공동체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모두 만족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열렬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열심히 했구나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년시기는 자신만의 분야를 확립하기 위해 관심 가는 곳에 소속돼 관계와 시야를 넓혀가고자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깊어지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지만, 보통 이를 감당할 정도의 여유는 없죠. 아르바이트로 채워할 수도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준비만 해도 바쁘게 되었고요. 청년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

영화, 공연, 전시, 여행 등 문화생활을 지원 하든 다양한 모임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나가고 편안히 쉴 자신만의 주거 공간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같은 투박이를 위해 교통이 좋은 곳으로요.  
 불안한 청춘들께 “두드리면 답이 온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오월광장’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으니 좀 더 기반을 만들면서 저만의 분야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막연하고 불안하지만, 함께 해나가는 고민 끝에 꼭 값진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월광장’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막막할 땐 주변에 마음껏 기대하고, 되는데로 두드리길 바랍니다. 두드리다보면 누군가는 답을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불안할 때가 있겠지만 내가 갑자기 진화하지 않듯 세상도 차곡차곡 느리게 변하고 때로는 열렁뿔렁 굴러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나도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에게, 주변에, 마주치고 연이 닿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무한한 관심을 쏟아주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월광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솔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청년오월해설사 활동모습.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